

《元世祖出獵圖》 중의 世祖 服飾 연구

최 규 순^{*} · 고 부 자

東華大學校(上海) 服裝學院,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A Study on the Costume of Kublai Khan of the 《Kublai Khan on a Hunting Trip》

Kyu-Soon Choi and Bou-Ja Koh

Dept. of Chinese Traditional Costume, University of Dong-hua at Shanghai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5. 6. 15. 접수: 2005. 7. 1. 채택)

Abstract

「Kublai Khan on a Hunting Trip」 were painted by Liu Guan-dao. This painting gives us very important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cosume of Yuan dynasty because of realistic description. We studied the name of costume of the king Shizu in this painting by using the way of comparison his costume with another paintings, the records and archaeological finds.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stume of the king Shizu is judged to be Jisun, the traditional costume of Mongolian own meaning one colour. The name of each is the Yinshu warm hat, being making into the fur of a kind of rodents, the Yinshu Jisun, the Red colour Jisun, being railed on the robe, and the Cloud boots cover. And we found that the decoration on the neck and sleeve tib of the Yinshu Jisun had been made by sable furs, and the decoration on the surface had been made by tails of them, going by the name of Rondcs at that time. It also showed that the meaning of onc colour of the Jisun is not only just appearing one colour on the one person but also being able to appear two set of one colour.

Key words: Yuan dynasty(元), Mongolia(몽고), Jisun(질순), costume(복식).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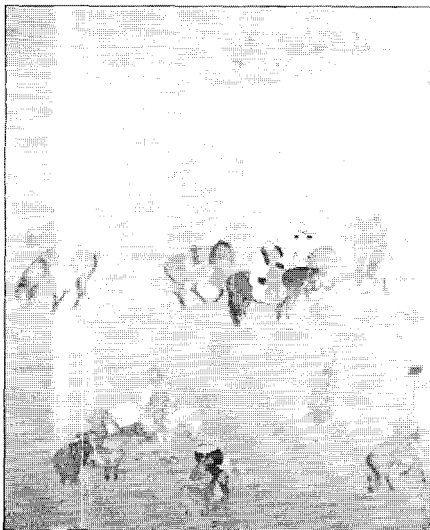
중국 역사에서 異民族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한 왕조로 元(1271~1368)과 清(1644~1912)이 있다. 이 두 왕조는 漢·唐·宋·明 등의 漢族 국가와 달리 非漢族 국가로서 황제 권력의 적법한 보유자로 인정을 받아 소수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통치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적 정치 제도

들을 이용함으로써 대부분 중국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관료 조직을 통해 중앙집권화 된 諸國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중국적인 사회 생활과 문화 생활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신들은 長城 너머에 있는 고향을 유지함으로써 한 민족으로 존재한다는 자의식을 지키고 중국인과의 同化를 회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중국인들 한가운데서 중국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 의복, 음식, 이름, 심지어는 언어까지 - 빌어쓰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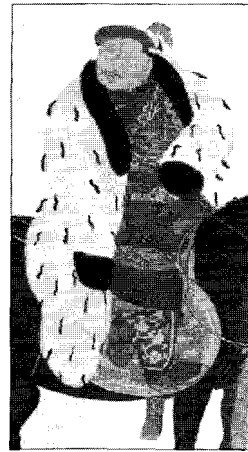
^{*} 교신지자 E-mail : bbaneul@hanmail.net

하였다.¹⁾ 元朝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元史』輿服志에도 그 일면이 나타나 “나라를 세운 元初에는 모든 일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冠服과 車輿 方面에서 모두 옛 습속을 따랐다. 世祖가 天下를 통일한 후 가까이는 金과 宋을 취하고, 멀리는 漢과 唐을 본받았다”²⁾라 하였다. 그러나 元代에는 이렇게 중국식 복식 제도가 채택되는 것과 동시에 質孫服으로 대표되는 蒙古族 전통의 복식이 여전히 제도 속에 영입되고 있어 기타 왕조와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元의 畫家 劉貫道의 작품인 《元世祖出獵圖》(이하 《출렵도》라 함)는 元世祖 쿠빌라이(忽必烈, 1215~1294)가 신하들을 대동해 수렵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그림 1~2). 元代에는 전문적인 황실 畫院을 두지 않고 소수의 畫家들만이 宮庭에서 그림을 그릴 뿐이었는데, 유관도는 이러한 궁정화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그림은 높은 수준의 예술 창작성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 元代 복식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元世祖出獵圖》. 臺灣故宮博物院 소장.
(簡松村(1989), "弓勁馬強大漠較獵", p. 5)



〈그림 2〉《元世祖出獵圖》. 부분: 世祖像.

《출렵도》의 元世祖 복식은 『한국복식문화사』에서 소개된 바 있으나 단지 '질손복'이라고만 하였을 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고³⁾, 또 원대의 질손복이나 《출렵도》의 世祖 복식에 대한 후속 연구도 뒤따르지 않아 그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高麗 忠烈王이 元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질손연(只孫宴)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아⁴⁾ 高麗의 工도 질손복을 입었을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질손복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거의 공백 상태에 있는 고려시대 복식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첫째, 元代의 질손복에 대해 그 일면을 파악하고 둘째, 현재 중국 복식 연구에서 미흡한 복식에 대한 名命과 셋째, 《출렵도》와 관련되는 유물의 작성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출렵도》의 元世祖 복식과 문헌의 기록 및 출토 유물과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世祖 복식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질손복과 질손연에 대해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II. 元代 質孫服과 質孫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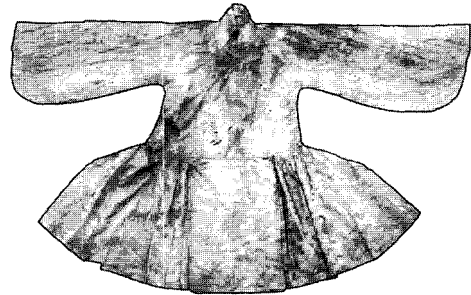
- 1) John K. Fairban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김한규, 전용만, 윤병남譯, 동양문화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1), pp. 193-205.
- 2)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元初立國, 庶事草創, 冠服車輿, 并從舊俗. 世祖婚日天下, 近取金宋, 遠法漢唐”.
- 3) 유희경, 김분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p. 127.
- 4) 高麗史節要 卷22, 忠烈王4, 6月 壬子. “六月壬子, 王至上都, 帝大設只孫宴”.

문헌에 나타나는 元 황제의 복식은 中國의 다른 왕조들보다 비교적 간단하여⁵⁾ 단지 冕服과 質孫服의 두 종류로 나뉜다. 면복은 中原의 복식 문화를 흡수한 기초 위에 약간의 변화만 가한 것임에 비해 질손복은 몽고족 고유의 전통 복식이었다. '質孫 *zhìsūn*'은 중국어로는 '一色服'을 의미하고, 위로 황제와 大臣으로부터 아래로 樂工과 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입었으며, 비록 굵고 거침의 차이와 등급에 따른 구별은 있으나 모두 '질손'이라 하였다.⁶⁾ 한편 『高麗史節要』에는 "질손은 중국어로 색[顏色]이라 한다"⁷⁾라 하였다. '質孫'은 또 '只孫 *zhìsūn*'⁸⁾, '濟遜 *jìxùn*'⁹⁾, '積蘇 *jī sū*'¹⁰⁾ 등으로도 표기하였으며, 元代의 몇몇 詩文 중에는 '詐馬 *zhà mǎ*'라고도 하였다.¹¹⁾ 이 '질손'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質孫'에 대한 해석으로 色을 뜻하는 蒙古語 *jisun*의 音譯이라는 것이고,¹²⁾ 다른 하나는 '詐馬'에 대한 해석으로 笠[外衣] 혹은 衣服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jāmah*의 音譯이라는 것이다.¹³⁾

질손복에 대해 현재 중국복식학자들은 曳撒의 형태라는 의견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⁴⁾ 예살의 형태에 대해 『明宮史』에는 "그 옷은 뒤는 잘라지지 않고 양옆에 무가 있으며, 앞은 두 개로 잘라져 아래(속의) 양옆에 바면접이 있다"¹⁵⁾라 하였다. 또 『播溪隨

錄』에는 明의 "衣撒直領"에 대해 "앞은 帖裏와 같고 뒤는 직령과 같으며 양쪽에 주름이 있는 옷"¹⁶⁾이라 하였다. 아래 裳에 주름이 잡힌 형태의 옷은 明대의 출토 유물(그림 3)에서 그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의 의견과 달리 『元史』 輿服志에서 질손복에 대해 "겨울과 여름의 옷이 다르나 정해진 제도는 없다[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¹⁷⁾라 하였으므로, 질손복을 예살의 형태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출렁도》에서 세조가 입은 질손복의 고찰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元史』 輿服志에 의하면 질손복은 계절에 따른 구



〈그림 3〉 明代 曳撒 南京市博物館 소장.
(明朝首飾冠服, p. 224)

- 5) 기타 왕조의 황제복식은 예를 들면 唐代에는 大裘之冕 衮冕 鷩冕 鷩冕 鷩冕 玄冕 通天冠 武弁 黑介幘 白紗帽 平巾幘 白帽 등 12種(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과 大裘冕 衮冕 鷩冕 鷩冕 鷩冕 玄冕 通天冠 緇布冠 武弁 弁服 黑介幘 白紗帽 平巾幘 白帽 등 14種(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이라는 두 가지 다른 기록이 있다. 또 宋代에는 大裘之冕 衮冕 通天冠 絳紗袍 履袍 衫袍 窄袍 御閱服 등 7種(宋史 卷151 志第104, 輿服3)이 있고, 明代에는 冕服 通天冠服 皮弁服 武弁服 常服 燕弁服 등 6種(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清代에는 禮服 古服 常服 行服 雨服 등 5種(清史稿 卷103 志第78 輿服2)이 있다.
- 6)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漢言一色服也. 內庭大宴則服之, 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 凡勳戚人臣近侍, 賜則服之. 上至皇帝大臣, 下至於樂工衛士, 皆有其服. 精粗之制, 上下之別, 雖不同, 總謂之質孫云."
- 7) 高麗史節要 卷22, 忠烈王4, 6月 壬子. "只孫華語顏色, 赴會者衣冠, 皆一色."
- 8) 元史. 元典章, 高麗史節要 등.
- 9) 四庫全書, 吏部, 正史類, 元史 輿服志; 集部5, 別集類4, 周伯琦(元), 近光集 卷1, 詐馬行(文淵閣四庫全書 CD 卷, 上海: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9) 등.
- 10) 四庫全書 吏部, 清乾隆朝撰, 欽定續通志, 卷123, 器服略(文淵閣四庫全書 CD 卷, Op. cit.).
- 11) 韓儒林, 穹廬集 - 元史及西北民族史研究(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2), pp. 247-254.
- 12) 史衛民, 元代社會生活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p. 103; 向剛, 元代工藝美術史(沈陽: 遼寧出版社, 1999), p. 87.
- 13) 韓儒林, Op. cit., pp. 247-254.
- 1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2), p. 355; 陳娟娟, 黃能馥, Op. cit., p. 300; 周汛, 高春明, Op. cit., p. 204.
- 15) 宮愷(明), 明宮史 卷3, 內臣服佩. "其製後襟不斷, 而兩傍有襞, 前襟兩載, 而下有馬面褶兩傍耳."
- 16) 柳菴遠, 播溪隨錄 卷25, "武權容山奉, 穿衣撒直領, 其制前貼裡, 後如直領, 左右兩旁各有襞積."
- 17)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별이 있는데 황제는 겨울 11등과 여름 15등이 있고, 百官은 각각 9등과 14등이 있다. 그 중 황제 직손복은 <표 1>과 같다. 그 내용은 옷과 관모로 나누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옷은 기본적으로 색상과 그 재

료[衣次]를 함께 표기하였고, 관모는 색 장식 재료와 함께 帽·冠·笠 등 그 종류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옷과 관모가 대부분 같은 색과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色服'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표 1> 皇帝質孫服

계절	등급	衣		冠
		色 및 衣次	注	
겨울	1	納石失	金錦也	金錦暖帽
	2	怯綿裏	剪茸也	
	3	大紅	寶裏 服之有爛者也	七寶重頂冠
	4	桃紅		
	5	紫		
	6	藍		
	7	綠		
	8	紅	粉皮	紅金答子暖帽
	9	黃		
	10	白	粉皮	白金答子暖帽
	11	銀鼠	其上並加銀鼠比肩 (俗稱曰樺子答忽)	銀鼠暖帽
여름	1	答納都納石失	綴大珠于金錦	寶頂金鳳紋笠
	2	速不都納石失	綴小珠于金錦	珠子捲雲冠
	3	納石失		
	4	大紅珠寶裏		珠綠邊紋笠
	5	紅毛子答納		
	6	白毛子金絲寶裏		白藤寶貝帽
	7	駝褐毛子		
	8	金繡龍大紅羅		金鳳頂大紅笠
	9	金繡龍綠羅		金鳳頂綠笠
	10	金繡龍藍羅		金鳳頂藍笠
	11	金繡龍銀褐羅		金鳳頂銀褐笠
	12	金繡龍棗褐羅		金鳳頂棗褐笠
	13	金龍青羅		金鳳頂漆紗冠
	14	珠子褐七寶珠龍答子		黃牙忽寶貝珠子帶後簪帽
	15	靑速夫金絲綸子	速夫 回回毛布之精者也	七寶漆紗帶後簪帽

밖에 마르코폴로의 기록과,¹⁸⁾ 『近光集』¹⁹⁾의 내용에 의하면 질손복은 겹옷과 관모뿐만 아니라 신[靴子]과 腰帶까지도 색상의 통일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색상을 통일한 후 옷, 관모, 요대 등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한편 백관들은 황제의 賜與가 있어야만 질손복을 입을 수 있었다.²⁰⁾

元代에는 궁정연회가 발달하여 매년 정기식으로는 설날을 비롯하여 황제의 생일, 제사, 사냥, 諸王과의 朝會 등 13차례의 연회가 행해졌고²¹⁾, 부정기적으로는 황제의 즉위와 여러 臣들에 대한 尊號 및 황후와 태자의 冊立²²⁾ 등의 많은 행사에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회는 삼일 동안 거행되는 것이 기본이었다.²³⁾ 『元史』輿服志에 의하면 질손복은 “궁정연회[內廷宴會]에 착용한다” 하였는데²⁴⁾, 이 연회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은 한 가지 색상의 옷을 입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회를 '질손복'의 명칭을 따라 '質孫宴'이라 칭하였고, 또 '詐馬宴[詐馬筵]'²⁵⁾이라 표기하기도 하였다. 즉 각 개인이 관모에서부터 신까지 일색복으로 구색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참가인원 모두가 같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질손연의 본질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년에 여러 차례의 질손연이 행해졌고 연회는 삼일 동안 거행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 삼일 동안 연회 참가자들은 매일 옷을 바꾸어 입는 관습이 있었다. 따라서 원의 황제와 귀족 및 대신 등은 모두 여러 벌의 질손복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元世祖 服飾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대 황제의 복식에 대한 기록은 단지 면복과 질손복의 두 종류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면복은 憲宗 2년(1252)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처음 입었고,²⁶⁾ 세조 至元 12년(1275)에는 天地와 宗廟에 대한 제사, 尊號의 受冊, 生날의 受朝, 황태자 책봉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면복 제조에 대한 기록은 延祐 7년(1320)에 나타난다.²⁷⁾ 한편 마르코폴로의 기록에 의하면, 면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는 설날에 황제가 일반 백성과 함께 慣例에 따라 백색 옷을 입었다 하였으므로²⁸⁾ 사실상 면복 제도는 세조 말년까지도 성실하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元史』輿服志에 질손복이 궁정연회[內廷宴會上]에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황제 복식에 대한 문헌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그 착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황제가 휴식을 취할 때 便服을 입었을 것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밖의 경우에는 질손복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렵도》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같은 색을 입지 않았다 해도 世祖가 입은 복식을 질손복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출렵도》의 元世祖는 홍색 襪이 있는 백색 모자를 쓰고, 표면에 흑색의 장식을 달고 깃과 소매 끝에 흑색의 緣飾을 가한 白色裘²⁹⁾를 입고 있다. 그 안에는 襪이 있는 홍색 袍를 입고, 홍색 靴를 신었으며, 袍

18) 馬可波羅, 『馬可波羅遊記』, 陳開俊等合譯(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1), pp. 353-362.

19) 周伯琦(元), *Op. cit.*, “命宿衛大臣及近侍服所賜濟滙珠翠金寶衣冠腰帶盛飾.”

20) 주 5)참조; 蘇大猷(元), 元文類 卷41, 經世大典序錄·燕饗. “國有朝會慶典, 宗王大臣來朝, 歲時行幸, 皆有燕饗之禮. 親疎定位, 貴賤殊列, 其禮樂之盛, 恩澤之普, 法令之嚴, 有以見祖宗之意深遠矣. 與燕之服, 衣冠同制, 謂之質孫, 必上賜而後服焉.”; 虞集(元), 道園學古錄 卷24. “三月賜以質孫宴服, 質孫者, 貴臣見饗于天子則服之, 今所賜絳衣也. 貴大珠以飾其肩背臂間. 首服亦如之.”

21) 馬可波羅, *Op. cit.*, pp. 98-103. 이 책에는 원의 궁정연회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황제와 귀족의 조회[大朝宴] 의식, 황제의 생일[萬壽日] 및 설날[元日] 등의 연회에 관한 것이다.

22) 韓儒林, *Op. cit.*, p. 247.

23) 周伯琦, *Op. cit.*, “如是者, 凡三日而罷, 其佩服日一易.”

24) 주 6)과 같음.

25) 周伯琦, *Op. cit.*

26)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初憲宗壬子年秋八月, 祭天於日月山, 用冕服此始.”

27)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祀天地宗廟, 受冊尊號, 元日受朝, 册皇太子則服之. 事未果行. 不延祐七年七月, 英宗命禮儀院使八思吉斯傳旨, 令省臣與太常禮儀院速制法服. 八月, 中書省會集翰林, 集賢, 太常禮儀院官講議, 依秘書監所藏前代帝王袞冕法服圖本, 命有司製如其式.”

28) 馬可波羅, *Op. cit.*, p. 102.

29) 선동직으로 모가 길고로 향한 옷을裘라 칭하였기에 본 고에서도 이 명칭을 채택한다.

위에 腰帶를 띠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복식을 각 요소별로 문헌 및 출토 유물 등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白色暖帽

몽고족의 남자 冠帽은 帽과 笠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모를, 여름에는 입을 썼다[冬帽而夏笠].³⁰⁾ 中原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 습속은 변함이 없어 《출렵도》의 元世祖 역시 帽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황제의 겨울 진속복 중 세조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毛를 재료로 한 관모로는 '銀鼠暖帽'가 있다.

곡물의 생산보다 동물 사육이나 수렵에 의존했던 몽고족은 옷도 기본적으로 동물의 가죽이나 털에 의존하여 해결하였고, 추운 겨울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에 원대에 그 조적 안에 上都大都貂鼠軟皮等局提領所를 설치하여³¹⁾ 전문적으로 가죽이나 모직물을 관리하였다.

元대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피 종류로 털이 긴 것은 銀狐와 사라소니[紫貂] 등이, 털이 짧은 것은 銀鼠와 자색담비[紫貂] 등이 있었다. 또한 貂鼠類 중 가공하여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銀鼠, 靑鼠, 靑貂鼠, 山鼠, 赤鼠, 花鼠, 火鼠 등이 있었다.³²⁾ 그 중 《출렵도》의 元世祖가 쓴 暖帽과 同一한 색인 백색의 털을 가진 것은 은서와 청서이다. 은서는 갓 태어났을 때는 청색의 털을 가지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백색으로 바뀌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백색은 점점 기묘해지며, 배 아래에 약간의 황색 털이 있고 꼬리 끝에 흑색 털이 있다.³³⁾ 청서로 옷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청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색 털로는

보통의 옷을 만들고, 배 아래에 있는 一寸 남짓한 백색 털로는 搭護[搭襖]를 만든다.³⁴⁾ 따라서 백색 털을 가진 동물 즉 은서와 청서 중 난모를 만드는 데 쓰인 것은 은서일 것이며, 元世祖가 쓰고 있는 난모를 문헌상에 나타나는 은서난모로 命名해도 착오가 없으리라 본다.

세조가 쓴 은서난모는 앞에 홍색의 檐이 있는데 《출렵도》 중의 다른 몇몇 인물들도 같은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다. 그 중 한 인물(그림 4)을 통해 모자의 뒷모습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葉子奇가 『草木子』에서 기술한 “前圓後方”³⁵⁾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자는 甘肅 漳縣에 있는 元 汪世顯의 가족 墓에서도 출토된 것(그림 5)이 있다. 또 『元史』 後妃傳에는 “몽고족 모자는 원래 앞에 침이 없었는데 세조가 활을 쏠 때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하는 말을 듣고 昭睿順聖皇后 蔡必이



〈그림 4〉《元世祖出獵圖》부분 : 前圓後方形 帽子 뒷모습.

30) 彭大雅, 黑髮事略, 徐應鑰註, (北京: 中華書局, 1985), p. 4.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서, 황제 여름철 질손복 중 '白毛子金絲寶裏, 駝褐毛子'와 한 벌이 되는 관모는 '白藤寶貝帽'로, 여름철에 '帽'라는 명칭의 관모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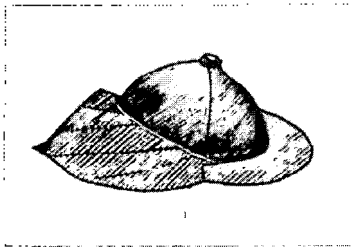
31) 元史 卷89, 志第39, 百官5. 至元 9년(1272) 설치에 설치하였고, 그 아래에 上都大都貂鼠軟皮等局 上都軟皮局 牛皮局 上都斜皮等局 이 속하였다. “上都大都貂鼠軟皮等局提領所, 提領二員. 至元九年置, 受府札. 二十七年, 給從七品印, 改受省札. 大德十一年, 給從六品印, 改受敕牒. 至治三年, 仍改受省札……”.

32) 史衛民, *Op. cit.*, pp. 84-85.

33) 熊夢祥(元), 析津志補佚 物產, 鼠狼之品,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3), p. 233. “銀鼠: 和林朔北者爲精, 產山石罅中. 初生赤毛青, 經雪則白, 愈經年深而雪者愈奇, 遼東骨鬼多之. 有野人於海上山數中鋪設以易中國之物, 彼此俱不相見, 此風俗也. 此鼠大小長短不等, 腹下微黃. 貢賦者以供禦帷帳·帳幔·衣·被之, 每歲程工於(大都)南城貂鼠局, 諸鼠惟銀鼠爲上. 尾後尖上黑.”

34) *Ibid.*, p. 233. “其尾有青慘色, 光潤瑩軟, 腹下有白毛寸許, 制衣青爲衣, 而白者綴搭爲搭護, 仍以銀鼠絛飾或水獺黑貂並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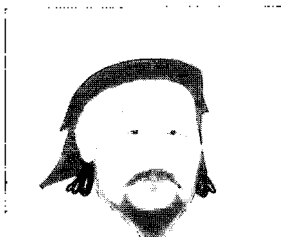
35) 葉子奇, 草木子 卷3下, 雜制篇. “官民皆帶帽, 其笠或圓, 或前圓後方, 或樓子, 蓋兜笠之遺制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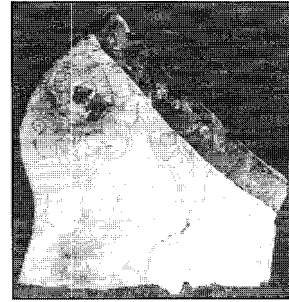
〈그림 5〉 前圓後方形 帽子. 甘肅 涼縣 元 汪世顯 가족 墓 출토. (陳娟娟, 黃能馥(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p. 300).

모자 앞에 침을 더했다”고 하여³⁶⁾ 침이 있는 모자가 세조의 妃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그림과 출토 유물에서도 비록 세조가 쓴 침이 있는 모자와 형태는 다르나 이마 부분에 緣飾이 있는 모자를 볼 수 있어 원대에 침이나 연식을 가한 모자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자료로는 臺灣古宮博物院에 소장된 元世祖 半身像(그림 6)이 있고, 유물로는 內蒙古에서 출토된 것(그림 7)과 북경의 개인 소장품(그림 8)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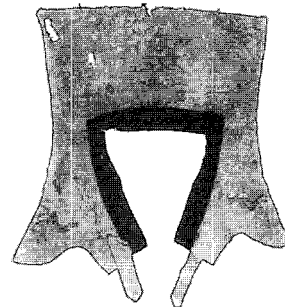
한편, 세조 이후의 황제들은 자신이 쓴 것과 같은 형태의 모자를 민간에서 모방해 제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예를 들면 大德 元年(1297)에 成宗이 자신을 위해 새로이 만든 흑색 모자의 제조를 금하였고, 至大 元年(1308)에 武宗은 자신이 썼던 것과 같은 형태의 모자를 다시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⁷⁾



〈그림 6〉 元世祖 半身像. 臺灣古宮博物院 소장. (陳娟娟, 黃能馥(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p. 300).



〈그림 7〉 緣飾이 있는 모자. 烏爾察布 盟達茂旗 明水鄉 출토.(Zhao feng (2004), *Style From The Steppes-Silk Costumes and Textiles from the Liao and Yuan Periods 10th to 13th Century*, p. 55).



〈그림 8〉 緣飾이 있는 모자. 北京 개인소장. (陳娟娟, 黃能馥(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p. 318).

2. 白色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털을 가공하여 백색옷을 만들 수 있는 동물에는 銀鼠와 青鼠가 있다. 그 중 담호는 청서의 배 아래에 있는 백색 털로 만드는데, 담호는 기본적으로 소매가 없거나[無袖] 반소매[半袖] 형태이므로 《춘립도》의 세조가 입은 옷은 담호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세조가 입은 백색구는 은시로 만든 것을 알 수 있고, 황제 질손복 중의 '銀鼠'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이 銀鼠는 『元史』에 일반적으로 뒤에 '質孫'이나 '裘'를 더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

36) 元史 卷114, 列傳第1, 后妃1. “胡帽皆無前簷, 帝因射日色炫目, 以諸後, 後即益前簷. 帝大喜, 遂命爲式”.

37) 元典章 卷58, 工部 卷之1, 造作1, 雜造. “新樣帽兒休造: 今後這皮帽樣子休做與人者, 與人呵, 你死也. 如今街下休做者, 做的人, 帶的人, 交紫徽裏如去者.”; “禁異樣帽兒: 這個縫皮帽的人, 刁不剌駙馬根前我帶的皮帽樣子, 爲甚麼縫與來應道, 今後我帶的皮帽樣子, 街下休交縫者. 這縫皮帽底人分付與留守司官人每, 好生街下號令了呵, 要罪過者”.

에³⁸⁾ 《출립도》의 세조가 입은 백색구 역시 銀鼠質孫 혹은 銀鼠裘라 명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前者를 따르도록 하겠다.

세조가 입은 은서질손은 깃과 소매끝[袖口] 부분에 흑색의 緣飾을 하였고, 또 표면에도 흑색의 장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재료로 부순 털이 사용되었는지는 『析津志輯佚』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의 黑貂에 관한 내용 중 “검은 색이며 털이 부드러운 것을 상급으로 치는데 주로 깃의 연식으로 사용한다. ……은서에 꼬리를 달아 옷의 장식으로 하는데 흑조로 연식을 하면 특히 아름답다”³⁹⁾라 하였다. 이로써 은서질손의 옷 표면 장식과 연식은 모두 흑초의 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원대에 흑조는 'Rondes'라 불렸고, 모피의 왕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부유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고가품이었고, 긴 옷[全身]을 만드는 데는 二千금이, 짧은 옷[半身]을 만드는 데는 一千금이 필요하였다.⁴⁰⁾ 또 흑초는 기타 毛皮類를 환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虎皮 1張은 貂皮 50張, 金線豹皮 1張은 초피 40張, 熊皮 1張은 초피 15張 등이다.⁴¹⁾

3. 大紅襪袍

『元史』與服志에 기록된 황제의 겨울철 질손복 중에서 홍색계로는 大紅質裘와 紅粉皮가 있다. 분피에 관해서는 상세한 註釋이 없으나, 보리에 관해서는 “옷에 난이 있는 것이나[服之有襪者也]”라 하였다. 《출립도》의 세조가 입은 袍 역시 무릎 부분에 난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袍를 ‘대홍보리질손’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복식 역사상 袍에 襪을 가하는 것은 北周의 宇文護에 의해 시작되었고⁴²⁾, 唐代에 이르러서는 太宗 貞觀

5년(631) 長孫無忌의 건의 이후 정식으로 官服에 사용되었다.⁴³⁾ 이때의 襪은 무릎 부분에 한 줄의 선으로 표시되며, 上衣와 下裳을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⁴⁴⁾(그림 9). 그러나 金代부터 襪의 위치와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襪을 가하고, 그 형태도 한 줄의 선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폭을 지닌 채 일반적으로 織金의 방법을 이용하여 화려한 무늬를 넣었다(그림 10). 《출립도》



〈그림 9〉 傅 罔立本《步輦圖》중의 襪袍 착용 禮官. 北京 故宮博物院 소장(上海圖書館 소장 복사본).



〈그림 10〉 紫地金錦襪綿袍. 金 齊國王墓 出土. (趙祥春, 遲本毅(1998), 金代服飾, p. 80).

38) 元史 卷127 129 132 134 202.

39) 熊夢祥, *Op. cit.*, pp. 233-234. “黑而毛厚者爲上, 多以之爲領緣……有以銀鼠帶尾爲衣飾, 緣以黑貂尤爲精美”.

40) 馬可波羅, *Op. cit.*, p. 64, pp. 108-109.

41) 元典章 卷38, 兵部5, 捕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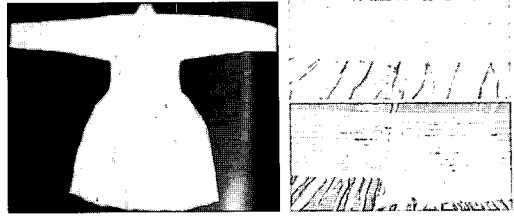
42) 『隋書』에 의하면 “保定四年(564), 百官始執笏, 常服上烏. 宇文護始命袍加下襪.”, 『舊唐書』에 의하면 “晉公宇文護始命袍加下襪”, 『蘇氏演義』에 의하면 “后周武帝始令袍下加襪”이라 하여, 처음 袍에 襪을 가한 인물에 대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572年, 武帝가 宇文護에 의해 살해되기 전 北周의 政權은 宇文護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무제가 내린 命이라 해도 결국 宇文護의 뜻이라 판단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隋書 志第6, 禮儀6;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蘇氏演義 卷下.

43) 新唐書 卷25, 志第14, 車服; 馬編, 中華古今注 卷中, 袍衫; 古今圖書集成, 經濟彙編禮儀典, 第321卷, 冠服部雜考5, 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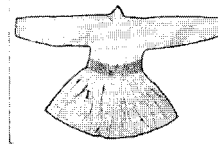
44) 周汎·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6), pp. 195-196.

의 세조가 위은 대홍보리질손도 이러한 형태의 옷이다. 한편 襖이 있는 옷감을 적조할 때 재료로 사용된 실의 소요량에 대해 『元典章』의 雲肩襖袖에 관한 기록에 “1장을 만드는데 熟絲 7斤 3兩 2錢이 필요하다”⁴⁵⁾라 하였다. 明代에는 이러한 형태를 '동수스란 [通袖膝襖]⁴⁶⁾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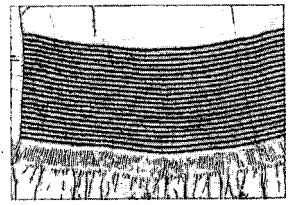
세조의 복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홍보리질손의 허리부분에 여러 가닥의 線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허리에 선이 있는 옷은 元代에 '辮線襖'라 불렀고, 『元史』輿服志에 “형태는 窄袖衫과 같고 허리에 가는 辮線을 접었다”⁴⁷⁾라 하였다. 한편 『黑韃事略』에는 “紅紫色의 帛을 꼬아 線을 만들어 허리에 가로로 부착하는데 이것을 腰線이라 한다”⁴⁸⁾라 하였고, 『老乞大』에서도 “帛으로 지은 腰線”⁴⁹⁾이라 하였다. 이 기록들을 통해 허리에 선을 표현한 것에 대한 명칭이 변선과 腰線의 두 가지가 있었음과, 접는 것과 따로 만들어 붙이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출토된 유물 중에서 허리에 線이 있는 옷은 모두 帖裏 형태이다. 帖裏는 上衣와 下裳을 따로 재단한 후,裳의 허리에 세로로 주름을 잡아 衣와 裳을 縫合한 옷이다. 辮線襖와 帖裏가 같은 옷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옷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 다만 帖裏 중에서 가로로 線이 있는 옷에 대해 학계에서 현재 腰線帖裏라 부르고 있다. 腰線帖裏 유물로는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유물(그림 11)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의 변수(遺脩: 1447~1524)묘 출토 유물(그림 12~14)이 있다. 이들 유물은 腰線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 묘 출토 腰線帖裏의 腰線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것(그림 12)과, 명주천을 말아서 만든 것(그림 13, 14)이 있어 腰線을 따로 만들 때에도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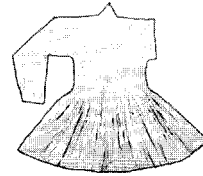
〈그림 11〉 腰線帖裏와 腰線부분 견(左)과 안(右). 해인사 소장 금동비로자나불 腹藏 유물. (<至心歸命禮 韓國의 佛腹藏> 특별전 (2004), pp. 7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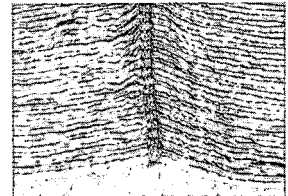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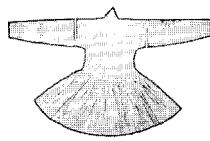
〈그림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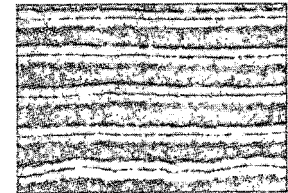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3-1〉



〈그림 14〉



〈그림 14-1〉

〈그림 12~14〉 遺脩묘 출토의 腰線帖裏와 腰線부분 (유물 변15, 19, 2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변역 출토유물 기증전 (2000), pp. 33-35).

45) 元典章 卷58, 工部卷之1, 造作1, 緞疋.

46) 明史 卷82, 志第58, 食貨6. “諸色紵絲紗羅織金閃色蟒龍斗牛飛魚麒麟獅子通袖膝襖”; 明史 卷325, 列傳第213, 外國6. “金織通袖膝襖”; 四庫全書 史部, 雜史類, 王世貞(明), 弇山堂別集 卷14, 卷77. “織金四爪蟒龍膝襖”, “織金虎并圈金寶相花雲肩通袖膝襖”, “織金通袖膝襖”, “織金四爪蟒龍膝襖八寶衣”, “圈金寶蓮花雲肩通袖膝襖”, “紅粉皮圈金雲肩膝襖通袖衣”, “雲肩通袖膝襖衣”, “紵絲織金四爪蟒龍單總身膝襖暗花八寶符朵雲”, “紵絲織金蟒龍三爪單總身膝襖紅”, “織金通袖膝襖.”

47)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辮線襖, 制如窄袖衫, 腰作辮線細折.”

48) 彭大雅撰, 徐霆疏證, *Op. cit.*, p. 5. “用紅紫帛捻成線 橫在腰 謂之腰線.”

49) 경북대학교 출판부, 元代 漢語本 『老乞大』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0), p.52.

(『老乞大』 26면) “裁帛腰線”

있다.⁵⁰⁾ 이 밖에 중국에서 출토된 元代 腰線帖裏 유물 몇 점(그림 15~17)에서도 腰線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어 문헌기록과 실물을 대조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朝鮮王朝實錄』世祖 6년(1460)부터 成宗 17년(1486) 사이의 기록에서 大紅羅腰線帖裏 鴉青羅腰線帖裏 大紅緋袖藍腰線帖裏 白苧布腰線帖裏 桃紅羅腰線帖裏 大紅紬腰線帖裏 大紅紬藍腰線帖裏 大紅紬藍腰線帖裏 大紅匹段腰線帖裏 등의 명칭이 나타나는데⁵¹⁾ 이름 통해 옷 본래의 색과 腰線의 색을 달리한 경우도 있음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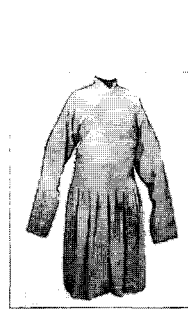
이 외에 袍에 털을 대는 방법에 대해 『出使蒙古記』에는 “겨울에 그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모피 長袍를 만드는데 하나는 털이 안으로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털이 밖으로 향해 있어 추위를 막는다”⁵²⁾라 하였다. 이는 《출렁도》의 세조가 입은 대홍보리질손도안에 털을 덧대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세조가 입은 홍색의 袍는 大紅 寶裏賀孫이고, 옷의 형태는 辯線襖 즉 腰線帖裏의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홍보리질손은 옷의 형태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 그 옷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명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손복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즉 『元史』여부지의 질손복 관련 내용은 그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질손복이 가지는 특징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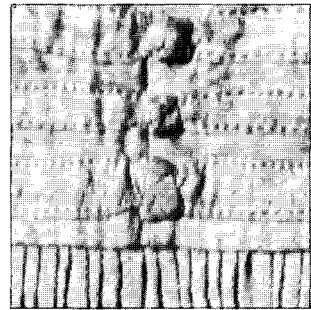
4. 신[靴]

《출렁도》에서 세조는 홍색의 화려한 靴를 신고 있는데 질손복의 기록을 통해서는 적당한 명칭과 착장법 등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출토된 원대의 유물 중 몇 건의 '雲頭靴(그림 18, 19)가 있어서 세조가 신은 것도 靴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雲頭靴를 더하여 靴와 雲頭靴가 한 틀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두화는 『元史』輿服志에 “가죽으로 만들고, 양쪽가에 구름송이를 새기며, 앞에 구름 모양을 만들고, (신의) 목 부분을 다리에 묶는다”⁵³⁾라 하였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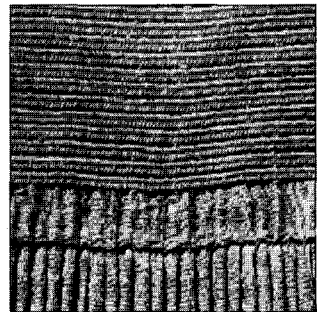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5-1〉



〈그림 16〉



〈그림 16-1〉



〈그림 17〉

〈그림 15~17〉 元代 腰線帖裏와 腰線 부분. 중국 출토. (Zhao feng (2004), *Style From The Steppes-Silk Costumes and Textiles from the Liao and Yuan Periods 10th to 13th Century*, pp. 44-51).

필자는 이 내용이 출토 유물 및 《출렁도》의 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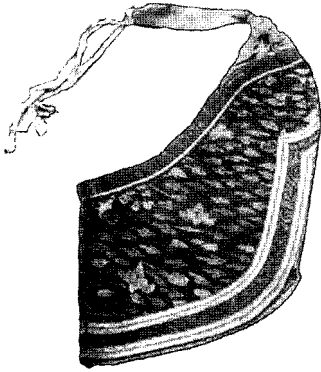
50) 최은수, “腰線帖裏에 대한 연구-변수(遺跡:1447~1524) 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창간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0), p. 73.

51) *Ibid.*,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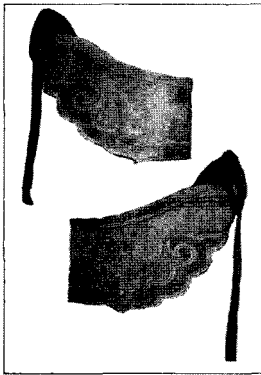
52) [英]道森, *出使蒙古記*.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p. 119.

“在冬季, 他們總是至少做兩件毛皮長袍, 一件毛向裏, 另一件毛向外, 以御風雪.”

53)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雲頭靴, 制以皮, 剡嵌雲朵, 頭作雲象, 靴束於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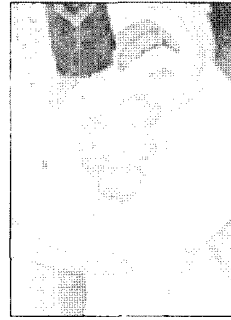


〈그림 18〉 雲頭靴. 烏蘭察布 盟達茂旗 明水鄉 출토. (Zhao feng (2004), *Style From The Steppes-Silk Costumes and Textiles from the Liao and Yuan Periods 10th to 13th Century*, 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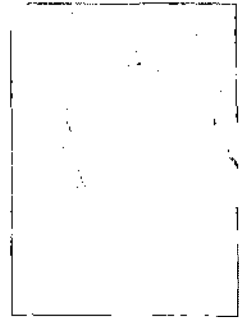


〈그림 19〉 雲頭靴. 출처 미상. (Zhao feng (2004), *Style From The Steppes-Silk Costumes and Textiles from the Liao and Yuan Periods 10th to 13th Century*,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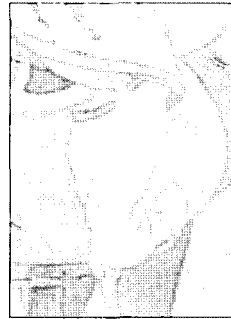
과 잘 부합된다고 보아 운두화라 명명하였다. 출토된 운두화를 보면 발목부터 무릎 밑까지 올라오며, 모양이 靴의 목 부분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또 좌우 모두 뒷부분에 끈 한 가닥이 연결되어 있다. 이 끈에 대해 허리띠에 묶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으나,⁵⁴⁾ 《출렵도》의 다른 인물들(그림 20-23)을 관찰해 보면 허리띠에 묶는 것이 아닌 두화의 뒷부분을 간사 다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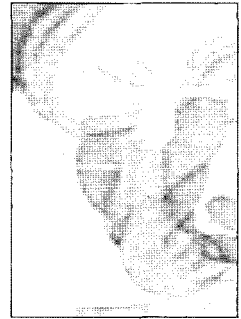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0-23〉 《元祖出獵圖》 부분: 雲頭靴 착용 모습.

함께 고정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위의 “鞵束於脛”의 기록과도 잘 부합된다 하겠다. 따라서 세조가 신은 신의 화려한 무늬는 靴 자체가 아닌 운두화의 무늬일 것으로 판단된다. 仁宗 延佑 원년의 服色等第에 의하면 원 정부는 庶人에 대해 무늬가 있는 靴의 착용을 금하고 있다.⁵⁵⁾ 이 禁制는 운두화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5. 腰帶

《출렵도》에서 세조는 대홍보리질손의 허리부분 辮線 위에 여러 색의 보석으로 장식한 腰帶를 띠고 있다. 원대에는 복식의 보석 사용이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종류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보석은 가격도 아주 높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元末明初의 陶宗儀가 쓴 『輟

54) Zhao Feng, Anne E. Wardwell and Mark Holborn, *Style From The Steppes-Silk Costumes and Textiles from the Liao and Yuan Periods 10th to 13th Century* (London: Anna Maria Rossi and Fabio Rossi Publications, 2004), p. 61.

55)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庶人……靴不得裁制花樣.”

緋綠』에는 “成宗 大德년간(1297~1307)에 모자 정수리에 엮는 1兩 3錢 무게의 紅寶石 한 덩어리가 당시의 화폐인 中統鈔 14만 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⁵⁶⁾ 또 명칭은 色의 명암이나 產地에 따라 달리하기도 하였다. 色의 명암에 따라 명칭을 구별한 것으로는 紅寶石, 綠寶石, 鶻睛, 貓睛 등이 있었다. 紅寶石[紅石頭]은 4종류가 있는데 淡紅色은 ‘刺’, 深紅色은 ‘遊者達’, 黑紅色은 ‘昔刺泥’, 紅黃黑雜色은 ‘古木蘭’이라 하였다. 綠寶石[綠石頭]은 3등급이 있는데 上等은 暗深綠色으로 ‘助把遊’, 中等은 明綠色으로 ‘助木刺’, 下等은 淺綠色으로 ‘撒葡萄酒’라 불렀다. 또 ‘鶻睛[亞姑]’이라 부르는 보석도 7가지가 있는데 上等은 深青色으로 ‘靑亞姑’, 中等은 淺青色으로 ‘爾藍’, 下等은 渾青色으로 ‘撲撲爾藍’이라 하였고, 이 외에 ‘紅亞姑’, ‘馬思良底’, ‘黃亞姑’, ‘白亞姑’ 등이 있었다. ‘貓睛[고양이 눈]’은 중간에 광택을 함유한 ‘貓睛’과, 묘성과 비슷하나 광택이 없는 ‘走水石’의 두 가지가 있었다. 產地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 것으로는 甸子가 있다. ‘甸子[松綠石]’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위구르전자[回回甸子]는 ‘爾舍尙的’, 西夏의 옛 땅에서 온 河西甸子是 ‘乞裏馬泥’, 襄樊 지역에서 온 襄陽甸子是 ‘荊州石’이라 하였다.⁵⁷⁾

또한 『元史』輿服志의 황제 질손복 중에는 ‘答納都納石失’, ‘速不都納石失’, ‘紅毛子答納’이 있는데 여기에 에도 각기 다른 보석이 사용되었음이 보인다. 그 중 答納都納石失에는 “금금에 큰 구슬을 꿰다[綴人珠于金錦]”, 速不都納石失에는 “금금에 작은 구슬을 꿰다[綴小珠于金錦]”라는 註釋이 있다. 여기의 註釋 내용으로 元代에 큰 구슬[大珠]은 ‘答納’으로, 작은 구슬[小珠]은 ‘速’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元代 몽고족 고유의 복식인 質孫服과 《元世祖出獵圖》중의 世祖가 착용한 복식을 비교 고찰해 보았다. 《출렵도》의 세조는 질손복을 갖추었는데 구체적으로 帽은 ‘銀鼠暖帽’, 衣는 ‘銀鼠質孫’과 ‘大紅寶裏質孫’, 신은 靴 위에 ‘雲頭靴’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겹옷인 은서질손은 黑貂의

모피로 목과 소매에 緣飾을 하였고, 표면에는 흑초의 꼬리를 날아 장식하였다.

질손복의 형태에 대해 중국 복식 학자들이 曳撒의 형태라고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근거가 미약함이 증명되었다. 즉 《출렵도》의 세조가 입은 “대홍보리질손”은 예살이 아닌 辮線襖 혹은 帖裏의 형태이고, 銀鼠質孫은 曳撒의 형태와 더욱 거리가 멀다. 『元史』輿服志에서도 “정해진 제도 없이(無定制)”라 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에서도 옷의 色, 衣次와 함께 기타의 특징만 나타날 뿐 옷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살은 단지 여러 형태의 질손복 중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질손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옷의 형태가 아니라 관모에서부터 신까지 一色으로 맞추는 것이다.

질손복의 “一色”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는 한 개인의 복식에서 오직 한 가지의 색상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출렵도》의 元世祖가 착용한 복식을 통해 복식 요소들끼리의 색상 결합에 의해 한 개인에게서 두 종류의 “一色”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조가 입은 은서난보와 은서질손이 결합되어 白色의 一色이 형성되고, 또 은서난보의 홍색 纈, 대홍보리질손, 운두화 및 靴가 결합되어 紅色의 一色이 형성된다. 이렇게 안팎의 백색과 홍색이 대비를 이루고, 또 그 대비 속에 각 색이 동일을 이루어 服色의 운용을 통한 美感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節要.
柳馨遠. 礮溪隨錄.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특별전 (2004). 수덕사 근역성보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면서 출토유물 기증전 (2000). 국립민속박물관.
최은수 (2000). “辮線帖裏에 대한 연구-변수(邊條

56) 陶宗儀, 輿耕錄 卷7, 回回石頭. “本土巨商中賣紅刺一塊於官, 重一兩三錢, 估價值中統鈔一十四萬錠, 用嵌帽頂上, 自後累朝皇帝相承寶重, 凡正旦及天壽節大朝賀時則服用之.”

57) Ibid.

- 1447~1524) 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연구* 장간호. 국립민속박물관.
- 元代 漢語本 『老乞大』 (2000).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隋書, 舊唐書, 新唐書, 宋史, 金史, 元史, 明史, 清史稿. 元典章.
- 馬縞. 中華古今注.
- 蘇鶚. 蘇氏演義.
- 蘇天爵. 元文類.
- 葉子奇. 草木子.
- 虞集. 道園學古錄.
- 陶宗儀. 輟耕錄.
- 宮愨. 明宮史.
- 文淵閣四庫全書 CD 号 (1999).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 簡松村 (1989). "弓勁馬強大漠較獵". *故宮文物月刊* 제 10기. 臺灣: 臺灣故宮博物院.
- 南京市博物館藏文物精品系列圖錄 *明朝首飾冠服* (2000). 南京市博物館編. 北京: 科學出版社.
- 內蒙古社科院歷史所 *蒙古族通史* 編寫組 (1991). *蒙古族通史*. 北京: 民族出版社.
- 道森[英] (1983). *出使蒙古記*.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馬可波羅 (1981). *馬可波羅遊記* 陳開俊等合譯.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 史衛民 (1996). *元代社會生活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尙剛 (1999). *元代工藝美術史*. 沈陽: 遼寧出版社.
- 熊夢祥 (1983). *析津志輯佚·物產*.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 趙評春, 遲本毅 (1998). *金代服飾*. 北京: 文物出版社.
- 周錫保 (2002).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 周汎, 高春明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娟娟, 黃能馥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 彭大雅 (1985). *黑鞬事略*. 徐運璜證. 北京: 中華書局.
- 韓儒林 (1982). *穹廬集-元史及西北民族史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Fairbank, John 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1991). *동양문화사*. 김한규, 전용만, 윤병남譯. 서울: 을유문화사.
- Feng, Zhao, Anne E. Wardwell and Mark Holborn (2004). *Style From The Steppes-Silk Costumes and Textiles from the Liao and Yuan Periods 10th to 13th Century*. London: Anna Maria Rossi and Fabio Rossi Publications.